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18	07. 25	08. 01
대 표 기 도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역사서 통독에 동참하심에 감사합니다(모세오경, 시가서도 완독해 주세요)
2. 주보 발송 - 여름 휴가기간(22일부터)동안 주보 발송은 쉽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목사에게 신청해주시요.
3. 교회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 영성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4. 교회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강희수 자매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 302장 ..... 다같이  
 기 도 Gebet ..... 황희순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 스 2 : 59 - 63(구p713)..... 황희순 집사  
 설 교 Predigt ..... 왕년은 왕년일 뿐이다!.....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 304장 .....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시무권사

## 깨끗하게 청소하라

며칠 전 2층 욕실의 욕조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 빠지는 속도가 느려 한참씩 고여 있다가 다 빠진 후에는 까맣게 때가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욕조와 수도꼭지와 배수구 위를 열심히 닦아 내도 여전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배수구 뚜껑을 들어내고 철사를 구멍으로 밀어 넣어 막힌 것을 꺼냈습니다. 배수구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왔는지, 머리카락과 때와 심지어 쓰레기 조각들이 잔뜩 쌓였습니다. 그것들을 다 꺼내고 나리 물이 제대로 빠졌습니다.

내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삶에서 보이는 부분은 잘 닦여 광이 날지라도 그 내면에는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계속적으로 나를 씻어주시는 성령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창조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쓸모 없는 존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 배수구 청소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 날카로운 도구로 더러운 곳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인 찌꺼기들을 깨끗이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꺼이 맡기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 삶의 뚜껑을 열어 젖히는 것이고, 또한 내 힘으로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 성령께서 열어 젖히는 것을 기꺼이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그 안에 낀 더러운 찌꺼기가 제거되고 깨끗이 청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는 철저히 씻어 내야 합니다. 깨끗이 제거하는 것, 죄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자의 도:대가와 상급 / Jack Mayhall  
 (네비게이트 선교회 이사장 역임)

\* 절대로 영적인 안일함을 허락하지 말라. - 故 Oswald Chambers -